

江陵草堂洞 出土 無文土器

白 弘 基

1

江陵 鏡浦湖를 中心으로 한 帶에는 一九六三年度 偶然히 發見된 鏡浦湖南方의 浦南洞 無文土器 遺蹟을 비롯하여 湖北方의 蘭谷洞안 현동에 數基의 支石墓가 散在하여 있고, 附近 一帶에서는 磨製石器들이 地上 採集되는 일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相當히 廣範圍한 無文土器 遺蹟址가 分布되어 있을 것으로 推則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學術的 發掘, 調査가 行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鏡浦湖畔의 無文土器文化의 年代와 性格 系統等을 究明할만한 資料를 얻지 못하고 있다.

本稿는 一九六九年度 江陵教育大學의 管理館의 基礎 掘鑿工事中 發見되어 現在 同校 博物館에 所藏中인 無文土器 一三點과 數個의 把手片을 資料로서 소개코저 한다. 遺憾스럽게도 發見當時 工事人夫들에 依해서 任意로 收拾되었기 때문에 出土址만의 性格이 뚜렷하지 않다. 遺物들의 形態는 完形에 가깝기 때문에 無文土器의 全國的 分布 研究에는 多少나 參考資料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遺物이 收拾된 當時 現場에서 工事に 參加한 金명일씨의 목적, 담과 筆者의 事後 調査한 바를 綜合하여 整理 報告하려고 한다.

2

遺物이 發見된 位置는 江陵市草堂洞 57-1-2 現 江陵教育大學 敷地인 砂成丘陵의 林野이며 鏡浦湖南方 〇.5km의 地點에 있고, 江陵市街

에서는 東北方인 江門方向으로 約 4km의 距離에 있다. 江陵은 大關嶺의 東쪽으로 東海岸에서 發源하는 南大川의 流路 變動에 依하여 浸蝕된 土砂丘로 形成된 일종의 氾濫原이라 할 수 있으며, 遺物이 發見된 砂成丘陵은 東海邊에서 300m 떨어진 東西로 最大幅 130m, 南北으로 約 500m의 길쭉한 標高 5m미만의 松林地帶이다. 이 丘陵의 西쪽에는 約 200m 幅의 田畝地帶(現在는 運動場)를 사이에 두고 다시 丘陵地帶로 連結되는데, 이 丘陵의 東쪽에는 草堂 民家 400餘戶가 자리하고 있다. 1963年度 發見된 浦南洞 住居址(註①)에서는 東北方으로 約 2km 떨어져 있다.

本稿에 소개하고저 하는 遺物(無文土器 一三點, 把手 五點)은 本館(관리관) 건물의 基礎 掘鑿(Trench)의 一個 地點에서 集中的으로 發見된 것으로 表土에서 六〇cm 내지 一〇〇cm의 깊이에 大部分 垂直狀態로 埋藏되어 있었으며 그 매장範圍는 約 5m미만이었고 한다(金명일씨의 말). 기타 遺物과 관계될만한 一切의 다른 遺蹟의 흔적은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 遺蹟址의 性格을 把握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點으로 미루어 보아서 埋藏과 關係되는 遺蹟이 아닐까 推則된다. 첫째 이 無文土器가 發見된 砂成丘陵은 新羅古墳群의 分布地帶이었고(註②), 甕棺으로 推定되는 灰青色格子文土器가 工事中 다른 地點에서 發見되었을 뿐만 아니라 近來에도 흔히 墓地로 使用된 地域이라는 點이며, 둘째 筆者가 調査한 바에 依하면 이 地域의 地層은 黃褐色砂層과 黑褐色砂層으로 構成되어 있을 뿐, 粘土層은 表土에서 2m 깊이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包含層等 文化層이 形成되어 있지 않았다. 이 砂成丘陵의 附近 一帶에 있는 다른 砂成丘陵도 新羅古墳 分布地帶로 알려져 있다.

3

1 杯形無文土器(圖① 圖版① 中·右)
胎土는 2個 모두 粘土에 砂粒이 섞여 있으며 色調褐暗는 色이다. 器

形은 恰似 요즈음의 유리컵 모양으로 둘 중 하나는 底部에 둥근 圓板을 器體에 附着시키고 接着部分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손으로 꼭꼭 누른 자국이 남아 있으며, 安全感이 있어 보인다. 크기는 高 8.9 cm 口徑 7.0 cm 底徑 5.7 cm 器壁 0.5~1.5 cm 이다. 또 하나는 平底이다. 高 8.2 cm, 口徑 6.0 cm 底徑 4.0 cm 器壁 0.2~0.8 cm (圖版① 中)

2 罍形無文土器(圖② 圖版① 左)

胎土는 적은 砂粒이 섞인 粘土이고 色調는 暗褐色、器形은 底部에서 口緣部까지 直線으로 크게 外反하고 있으며 平底이다. 高 四.八 cm 口徑 一〇.五 cm 底徑 五.八 cm 器壁 〇.四~〇.七 cm 이다.

3 小壺形無文土器(圖③ 圖版②)



圖 2 無文土器 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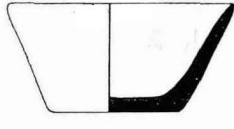


圖 1 無文土器 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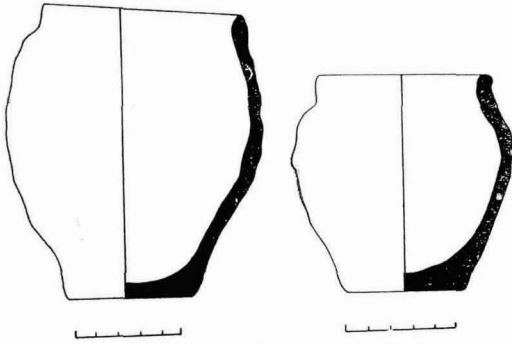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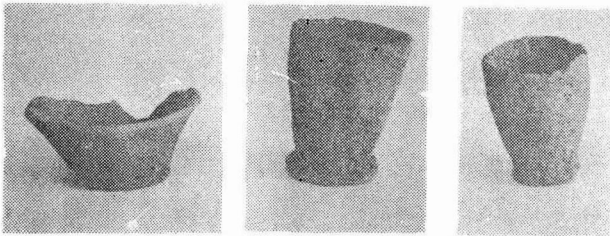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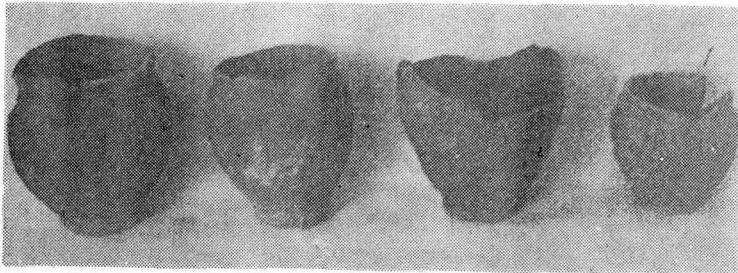


圖 3 無文土器 小壺



圖版 1 無文土器 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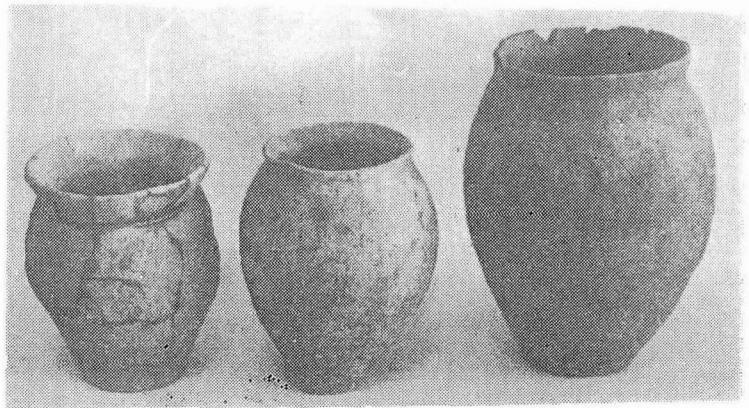
圖版 2 無文土器 小壺

4 壺形無文土器(圖④⑤⑥ 圖版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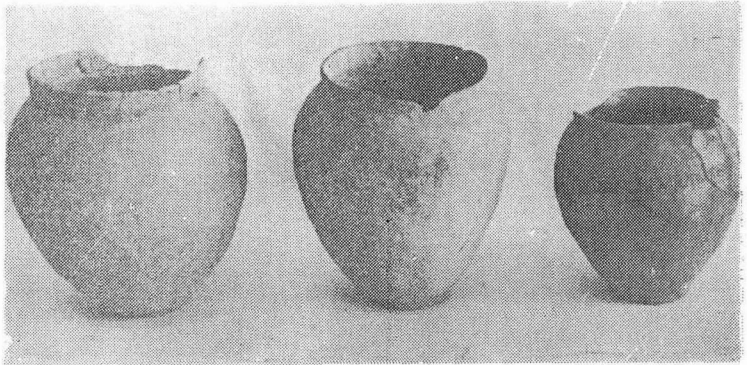
胎土는 모두 적은 砂立이 섞인 粘土이고 色調는 暗褐色、그 중 하나 圖③ 左 圖版向左 ②는 적은 猪口形底部에 口頸은 垂直으로 짧게 처리되었으며, 頸部分의 接着部分을 손으로 꼭꼭 누르고 그 위에 다시 左에서 右下로 드문드문 爪形刺突文이 둘러져 있다. 그 크기는 高 一三.二 cm 口徑 九.二 cm 底徑 六.〇 cm 器壁 〇.三~〇.八 cm 이다.

圖④ 圖版③ 左의 土器는 粘土에 많은 砂粒이 섞여 있는 赤褐色이고 內外壁面은 精選된 粘土로 粧被(drips)를 입힌 흔적이 뚜렷하다. 器形은 다른 土器들과 달리 腹部에서 頸部로 모지게 縮約된 다음 거의 直線狀態로 현저하게 外反시켰으며 頸部가 짧막한 다른 壺形無文土器와 相異하다. 高 二二.八 cm 底徑 一〇.六 cm 口徑 一六.九 cm.

圖⑤(圖版③ 中)胎質 器形은 흔히 볼 수 있는 壺形이다. 頸部가 짧막하고 色調는 暗褐色이다. 高 二二.二 cm 底徑 一〇.六 cm 口徑 一六.九 cm 이다.



圖版 3 無文土器壺



圖版 4 無文土器壺

圖版④의 土器들은 亦是 砂粒이 섞인 胎土로 만들어져 있으나 共通된 特徵은 表面에 精選된 粘土膜을 加하고 磨研具로 器表 全面에 걸쳐 細心하게 磨研한 흔적이 뚜렷한 點이다. 圖版④右의 土器는 酸化鐵을 바른 흔적이 보인다. 圖版④左의 土器는 燒成前 器形을 만들 때 內壁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위로 끌어올린 흔적이 남아 있다. 色調는 赤褐色이다. 高二〇·六~二六·七 cm 口徑 一五·〇~一七·八 cm 底徑 七·三~八·四 cm.

6 牛角形把手(圖版⑤)

붉은 砂粒이 섞인 粘土로 만들어졌으며, 把手에는 汗줄의 홈이 파여져 있다.

4

上記한 바와 같이 江陵 草堂洞 出土 無文土器는 胎質 色調 器形 等 典型的인 無文土器의 特徵을 잘 保存하고 있으나 아주 粗雜한 便은 아니다. 燒成度도 比較的 높은 便이고, 器表面의 丹塗磨研의 흔적이 있는 土器도 한두점 있으며, 小壺形土器 頸部에 爪形 刺突 文을 남기고 있는 點이 흥미롭고, 特히 杯形土器는 出土例가 드문 것으로 注目된다.

江陵 草堂洞 出土 無文土器의 形態는 全體的으로 高城郡 草島里 出土 無文土器(註③)와 同一하여 兩地域의 系統上 相互關係를 짐작케하나, 頭滿江地區 土器要素인 口緣部 밑에 押點隆起帶를 돌린 土器가 草島里에 서는 發見되었으나 草堂의 土器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南韓郡에 포함되는 形態의 土器가 大部分이다(註④).

江陵 草堂洞 出土 土器의 年代는 蹟遺址가 不確實하여 짐작키 어려우나 器形上으로 보아서, 또 牛角形把手가 混在한 點, 石器가 全無한 點으로 미루어 보아 無文土器時代의 後期 내지 鐵器時代 初까지 내려올 수

圖⑥(圖版③ 右)는 出土 土器中 가장 큰 壺形 無文土器로 胎土는 粘土에 적은 砂粒이 섞여 있으며 色調는 赤褐色이다. 器體와 底部의 接着部分에는 손으로 꼭꼭 누른 흔적이 있으며 器腹部는 長卵形으로 부풀었다. 頸部에서는 약간 縮約된 다음 거의 垂直으로 세웠으며, 바닥은 다른 土器와 달리 약간 上凹로 處理하였다. 高二九·二 cm 底徑 七·三 cm 口徑 一七·八 cm 器壁 〇·四~一·二 cm 이다.

5 壺形土器(圖⑦ 圖版④)

있는 것으로推定된다(註⑤)。

〈註〉

- ① 李蘭映 「江陵市浦南洞出土先史時代遺物」 歷史學報二四(一九六四)
- ② 拙稿 「江陵草堂洞古墳」 江陵教大論文集 7輯(一九七五)
- ③ 崔淑卿 「高城郡縣內面의先史時代遺蹟」 韓國文化研究院論叢 第三輯(一九六二)
- 崔淑卿 「花津浦周邊의土器·石器·支石墓」 韓國文化研究院論叢 第七輯(一九六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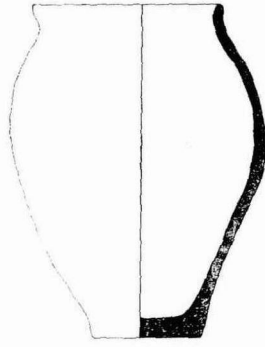


圖 5 無文土器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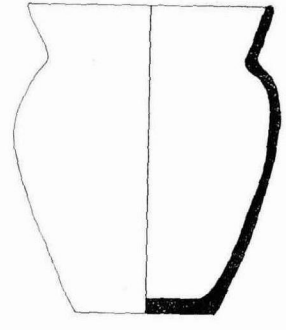


圖 4 無文土器廣口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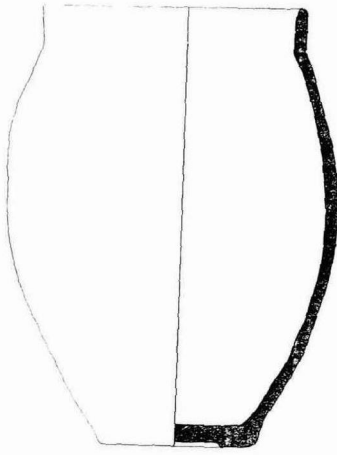


圖 7 無文土器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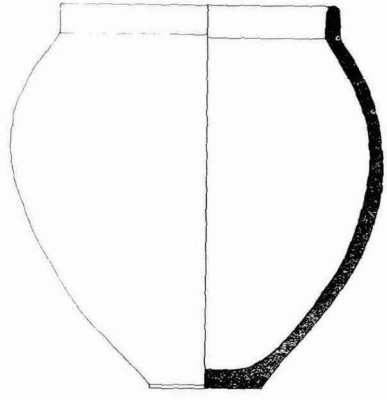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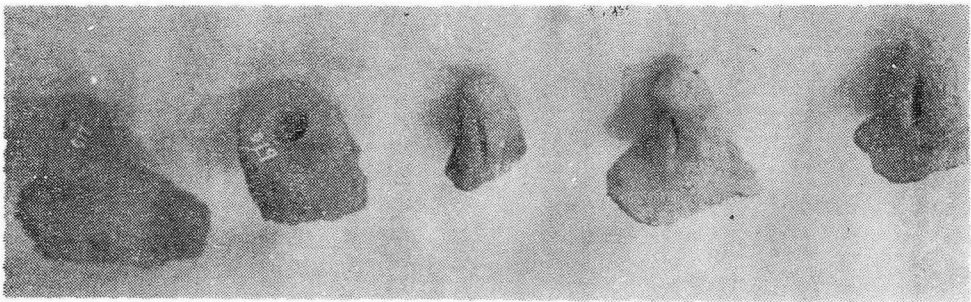


圖 6 無文土器壺



圖版 5牛角形把手

- ④ 金元龍 「韓國無文土器地域分類試論」 考古學 第一輯(一九六八) pp. 100~111.
- ⑤ 金延鶴 「韓國の考古學」 (河出書房新社 一九七1) pp. 101~105. (江陵教育大學博物館長)